

<2024년 12월 6일 금요기도회 말씀>

지난날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라

본 문 :

<신명기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 전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 찬양을 다 함께 부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요말씀에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날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이 두 말씀은 한 쌍입니다.

깊이 새겨 듣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 잊으면 혼돈된다.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마음이 혼돈되고 갈 길을 잃게 된다.

○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이 표적들이다.

잊으면 남남이다.

다시 조건 쌓고 다시 사귀어야 원 위치에 있게 된다.

그렇게 다시 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미 세월 가서 다시 하려면

지구를 다시 되돌려 인생이 젊음으로 돌아가야 하니

절대 다시 못 한다.

그러므로 지난날을 귀히 생각하여라.

지난날 죽음의 죄의 급물살에 떠내려갈 때

구출해 주고 사랑하며 길러 준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사랑하며 기뻐하며 행하여라.

○ 지난날 행하신 하나님과 주의 은혜를

기도 때도 평소 때도 이야기하며

잊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하여야 한다.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선생도 지난날을 생각한다.

그 조건으로, 그 조건에 따라 현재도 대하고 돕는다.

계속 그와 같이 앞으로도 그에 합당하게 행하신다.

지난날을 잊고 앞으로 축복받을 것은 생각도 말아라.

○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사랑하던 개가 있었다.

이 개는 지난날 물에 떠내려가는데 건져내서 기른 개다.

이 개는 주인이 좋아 늘 따랐다.

그런데 이 개가 어느 날부터인가

주인을 싫어하고 집 밖으로 돌고 딴 사람을 좋아하였다.

그래서 주인이 예전에 물에 떠내려갈 때 건져 주어서 살렸던

사진과 비디오 화면을 방에다 놓고

개에게 계속 보여 주었다.

개는 자기 얼굴임을 알아보았다.

물에서 떠내려갔을 때 건져내 주고

평소에 밥 주고 귀여워해 준 것을 계속 화면으로 보여 주니

개가 그때 지난날을 생각하고

다시 주인을 좋아하며 따르고 쫓아다녔다.

주인은 다시 밥도 주고 잘해 주었다.

이 개는 지난날 주인이 해 준 것을 잊고

자기는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주인이 끌어다 자기 것 삼은 줄로 알고

헛갈리고 혼돈된 것이었다.

‘죽음에서 나를 살려 주고, 또 사랑하며 길렀구나.’ 깨닫고

지난날을 생각하며 다시 좋아하고 따랐다.

그러니 주인이 전보다 더 사랑해 주었다.

하나님 성령 주 앞에도 모두 그러하다.

지난날 사망에서 영과 육이 죽은 자를

생명으로 이끌어 내어서 살리시고 말씀 주며 길러 오신 것이다.

- 각종 그 엄청난 은혜와 지난날 말씀해 주신 것을 잊으면
옛날 하나님 성령 주를 만나기 전 상태에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와 성령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
자신 없게 되고, 소망이 없게 된다.
앞길이 캄캄하게 생각된다.

- ◎ 한번은 월명동에 많은 자들이 모였다.
서로 선생을 찾으며, 선생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중 하나가
“저는 지난번에 선생님과 일도 하고 축구도 했습니다.” 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잔디 심고 꽃도 심고,
일하는 자들에게 국수도 삶아 주었습니다.” 했다.
지난날을 이야기하니 그로 힘이 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교역자도 하며
그와 같이 생명들을 선생과 살피자.” 했다.
지난날의 인연으로 또 할 일을 믿고 맡기었다.

- 나머지 사람들은 주고받은 조건도 사연도 없으니
힘이 빠져 있었다.
희망이 없으니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선생이 보니 이들도 지난날 하나님이 불러서 사랑받고
선생과 열심히 일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지난날을 잊고 현실만 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가까워서 함께 일하지?’ 했다.

그 모두에게

“너희도 옛날에 나와 같이 이 돌들을 쌓고 나무도 심었다.

생각해 보아라.” 하니 모두 자기도 했다고, 기억났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믿으니 내 몸이 되어

하나님 성령이 이 시대 시키신 일,

생명 관리하고 열심히 하자.” 했다.

그들은 기억나니 꿈만 같다고 하며

비로소 그때 한 것이 실체임을 알았다.

○ 지난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

자기 인생 최고 행복과 기적임을 생각하여라.

계속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선생님을 찾으며 고마워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여라.

지난날 충성하였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해 주셨으니,

이제 더 충성하며 사랑하여라.

더 사랑하고 더 표적을 일으키자.

해야 한다!

○ 선생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지난날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 큰일을 하게 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능력과 권능으로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하며 기도하고 이야기도 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은 더 사랑하니 걱정 말고 기도하고
지금 할 일 최고로 하라.” 하신다.

- 너희 모두도 그러하다.
잊으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희망 잃고 갈 길 잃고
섭리사를 떠나가서 사망의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대 품을 떠나 되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저 고통의 길로 끝까지 가서
사망에서 불의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살아야 한다.

이제는 지난날같이 다시 할 수도 없으니
보람을 느끼면서 기뻐 쓰며 하여라.” 하셨다.

월명동도 다시 할 수 없는 역사의 일이다.
지난날 했던 때를 생각하며 현재도 희망으로 해야 한다.

-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나.
지난날 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를 따라 사는 것이다.
- 하나님 성령 주께서 지난날 사랑해 주신 것 역시 기록하여
천 년 동안 증거하여라.
후손들도 이 역사를 따르면

선조들같이 그렇게 하나님 성령 주께서 성장기에 해 주신다고 기록해 놓으라고 하여 전경을 써 놓는다.

○ 하나님은

“지난날을 잊으면 혼돈되고 갈 길을 잃게 된다.

잊지 말아라.

내가 하는 것 보고 더욱 사랑의 대상, 신부 취급해 준다.

죽음에서 살려 준 것과

행해 준 것 모두 감사하고 기뻐 사는 것이다.

이제 나이 먹고 늙어가니 그 낙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온 자들도 말씀 배우고 온전히 알면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셨다.

○ 사람이 누구나 자기가 평생 기다리던 자 만났으면

그 희망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 잊으면 희망 끝나는 것이다.

이것을 잊고 하나님 품을 떠난 자들은

사망의 검은 눈물을 흘린다.

자기 영도 육도 죽어 검은 상복을 입고 운다.

이를 갈며 슬피 울다가 사망으로 떠나간다.

점점 더 거지가 되어 간다.

○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나와 같이 모으고 거두는 자가 영원히 복 있는 자다.

저마다 스스로 은혜 충만, 사랑 충만 하려면

지난날을 생각하여라.

하나님 성령 주가 사랑해 주시고 믿고 일 시키신 것을
해 놓고 생각하면 된다.

고로 선생도 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한다.

지난날로 현재의 소망과 미래의 소망이 이뤄진다.

-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본인이 받은 것은 잊고
얻으려고만 하는 아주 실패적인 사고를 하고 사니 패망한다.

받고서 그 후에 변치 않고 했으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선생 역시 지금도 변함없다.

지난날 해 주신 것 이야기하고 감사하며

지금도 더 사랑하겠다고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시며 하는 말씀이 있다.

“알았다. 영원히 끝까지 가자.” 혹은

“걱정 마라. 지금은 잠깐 고통스러워도 또 해 주마.

매일 신부의 신앙이다.” 하신다.

혹은 “일하자. 저 생명들 살리자. 섭리사의 일 찾아 같이 하자.”

혹은 “주저앉은 생명들 찾아다니며 일으키자.” 하신다.

- ◎ 모두 새벽을 나와 같이 깨우자.

새벽을 깨우니, 하나님도 성령도 같이 오늘도 말씀해 주셨다.

사랑하는 자끼리는 같은 말을 거듭하여도

늘 기쁨과 사랑이다.

희망이 해와 달같이 지구같이 영롱하다. 완전하다.

(말씀 마쳤습니다.)

♪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